캄보디아 뽀디봉 마을에서 온 편지 ⑬

가난, 쓰레기 그리고 화장실



뽀디봉 초등학교 학생들이 매일 화장실과 학교 주변을 스스로 청소하며 깨끗한 학교 문화를 만들어 가고 있다.

'자비를 나르는 수레꾼'이 캄보디아 뽀디봉 마을과 인연을 맺은 것은 2008년 가을이었습니다. 그로부터 어느덧 18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강산이 두 번 가까이 변할 만큼 긴 세월 동안 수레꾼은 후진국의 아픈 현실을 가장 가까이에서 마주하며 살아왔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우리를 가장 무겁게 했던 것은 세 가지였습니다. 반드시 벗어나야 할 가난, 학교와 마을 곳곳의 쓰레기, 그리고 불결한 화장실이었습니다.

뽀디봉 마을을 찾을 때마다 학교 운동장과 집 마당에 아무렇게나 흩어진 쓰레기를 보며 깊은 절망감을 느끼곤 했습니다. 그 풍경은 1960년대 대한민국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당시 우리나라도 하루를 살아가기 위해 온 가족이 노동에 매달려야 했고, 많은 아이들이 학교 대신 생업의 현장으로 나가야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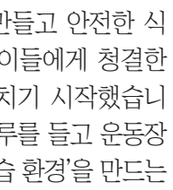
뽀디봉 사람들의 삶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물 한 바가지를 얻고 한 끼 식사를 해결하기 위해 하루를 온전히 노동에 바쳐야 했습니다. 먹고사는 일이 삶의 전부가 되면 아이들은 미래를 꿈꿀 시간도, 배움의 기회도 가장 먼저 잃게 됩니다. 그래서 수레꾼은 뽀디봉에 초등학교를 세우고, 중학교를 건립했으며, 나무를 심고, 우물을 파고, 화장실을 짓고, 쓰레기를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시설을 만드는 일보다 더 어려운 것은 사람들의 생활 습관과 의식을 바꾸는 일이었습니다. 플라스틱과 일회용품이 빠르게 생활 속으로 밀려들었지만, 쓰레기를 처리하는 생활 습관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쓰레기 더미 옆에서 맨발로 뛰노는 아이들의 모습은 우리 자신의 아픈 과거를 그대로 비추는 거울 같았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이 아팠던 것은 화장실이었습니다.

1960년대 우리나라의 재래식 화장실이 그랬듯, 뽀디봉의 화장실 역시 위생과 안전이 매우 열악했습니다. 특히 성장기 여학생들에게 불결한 화장실은 존엄과 안전을 위협하는 공간이었습니다. 화장실은 단순한 편의 시설이 아니라 아이들의 삶과 교육을 지켜 주는 가장 기본적인 공간이었습니다. 수레꾼은 지난 18년 동안 이 견고한 장벽과 끊임없이 마주해 왔습니다. 1960년대 대한민국이 교육과 위생 개선을 바탕으로 오늘의 발전을 이루었듯, 뽀디봉에서도 깨끗한 화장실을 만들고 안전한 식수를 공급하며, 아이들에게 청결한 생활 습관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함께 빗자루를 들고 운동장을 쓸며 '깨끗한 학습 환경'을 만드는 일에도 힘을 기울였습니다.

오랜 세월 몸에 밴 가난의 습관과 생활 방식은 쉽게 바뀌지 않았지만 노력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아무렇지 않게 쓰레기를 버리던 아이들이 스스로 빗자루와 쓰레기봉투를 들고 운동장과 화장실을 청소합니다. 예전보다 훨씬 깨끗해진 학교와 마을을 바라볼 때마다, 변화는 언제나 아주 느리게 찾아오지만 결코 헛되지 않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더디 가더라도 멈추지만 않는다면 길은 반드시 이어집니다. 1960년대 대한민국에서 시작된 변화의 기적이 지금은 캄보디아 뽀디봉 마을의 흙먼지 위에서도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꽃피고 있습니다.



오시환
자비를 나르는 수레꾼 대표

동국대 캠퍼스 전법일기 ⑦ 타국 생활 속 유학생에 힘이 된 불교

불교 안에서 하나 된 유학생들

장마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동국대 교정은 여느 때보다도 떠들썩합니다. 동국대 한국어교육원에 다니는 외국인 학생들로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학내 외국인 유학생의 비율은 매우 높은 편에 속합니다.

조계종 종립학교인 동국대에서 이 수많은 외국인 학생들에게 불교가 직접적으로 닿을 수 있는 징검다리는 '글로불동'이 유일할 것입니다. 글로불동은 동국대 외국인 유학생 불교동아리입니다. 지난해 4월에 신설돼 올해로 갓 1년이 됐는데, 처음의 서먹함은 사라지고 이제는 서로 제법 익숙하고 돈독해졌습니다.

학내 단과대학마다 불교동아리가 있지만, 한국말이 서툰 외국인들은 한국인 학생들 사이에 선뜻 섞이기 힘들어합니다. 언어 장벽으로 소외되거나 겉도는 경우도 많아, 동아리 활동 자체가 글로불동이 처음인 학생이 대다수였습니다.

그동안 마땅한 유학생 커뮤니티가 없었기에, 이들은 한자리에 모여 시간을 보내는 것만으로도 무척 기뻐했습니다.

우리 동아리에는 불교 신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슬림도 있고 기독교인도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모든 것을 품어주는 불교의 포용력 안에서 가능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국가 간의 갈등이나 종교의 벽을 뒤로한 채, 온갖 생명이 조화롭게 살아가는 남산의 숲처럼 함께 어우러집니다. 세계일화(世界一花)가 바로 여기서 피어납니다.

세계적으로 어지러운 시기에 글로불동의 역할이 더욱 귀중하게 느껴집니다. 저는 학생들에게 "사람 대 사람으로 만나면 우리는 모두 좋은 사람이고, 누구나 같은 행복을 원하는 평범한 인간일 뿐"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달라고 종종 말합니다. 이 마음만 있다면 서로 미워하고 싸우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서툰 한국어에 겉도는 유학생 포용
불자부터 무슬림·기독교인까지 안고
불연으로 따뜻한 추억 선물하려 해

타국에서 힘들게 공부하는 유학생들이 동국대 불교의 품 안에서 행복한 추억을 가득 안고 본국으로 돌아가길 바랍니다.

이 친구들이 고향으로 돌아가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이곳에서의 즐거운 기억들을 종알종알 나누는 모습을 떠올려봅니다. 그 자체가 바로 부처님 법을 전하는 포교가 아닐까요?

이를 위해 글로불동은 늘 학생들에게 따뜻한 추억을 만들어주려 노력합니다. 유학 생활 중 MT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던 80여 명의 학생들과 1박 2일로 떠났던 만해마을 여정이 바로 그랬습니다.

낙산사를 거쳐 만해마을에서 레크리에이션을 즐기며, 서툰 한국말과 중국어, 베트남어, 영어로 유쾌하게 소통하던 아이들의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벅찼습니다.

특히 올해는 늘 유학생들을 세심하게 살펴주시는 이사장 돈관 스님의 배려와 흥국산업 이기윤 회장님의 후원 덕분에 제주도 템플스테이라는 특별한 여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소중한 기회를 학생들과 함께할 수 있음이 늘 감사할 뿐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불보살님들의 가피뿐만 아니라 학교를 후원해 주시는 분들, 가까이는 글로벌학생 팀과 건학위원회 분들의 보살핌 덕분임을 되새기며 지극한 마음으로 모든 분들께 수희찬탄 올립니다. 이번 제주도에서의 시간 역시 아이들에게 대학 시절의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기를 간절히 발원해 봅니다.



진정 스님
동국대학교 전법특임교수

스마트폰에 담은 사찰 꽃문

㉕ 우산의 '공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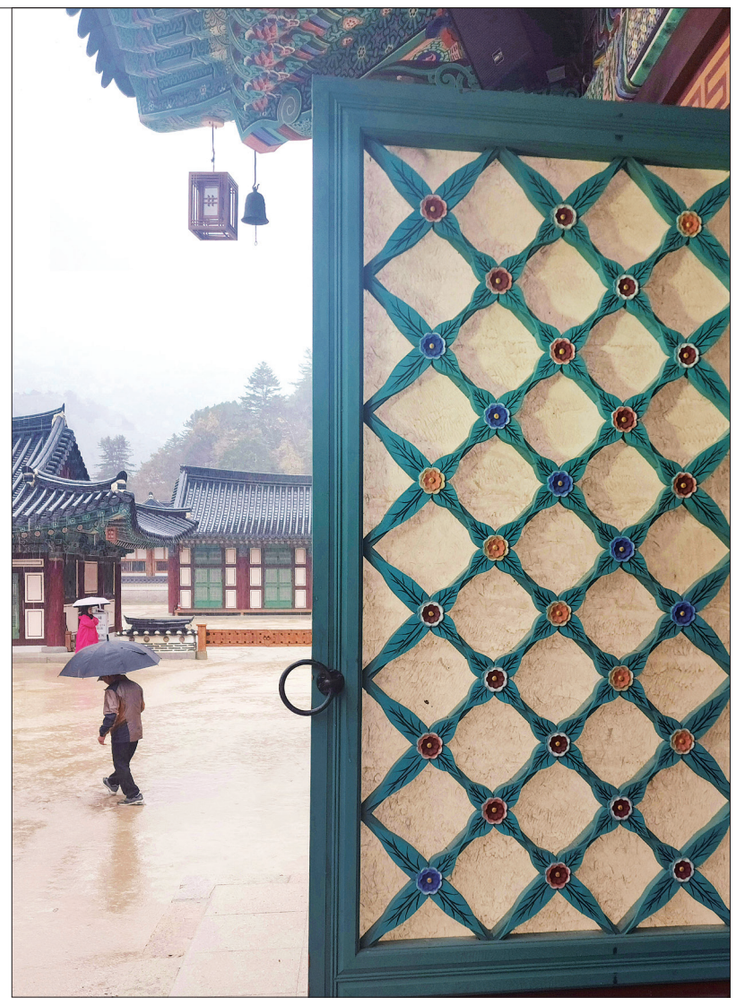
우산은 위대한 발명품이다. 첫째 이유는 발명 당시에 이미 '진화'가 완성됐다는 점이다. 소재나 내구성의 차이일 뿐, 형태의 측면으로 보자면 종이우산이나 비닐우산이나, 요즘 잘난 것들이나 매한가지다. 그다음 이유가 결정적인데, 비 오는 날에도 사람들에게 어슬렁거릴 수 있는 '자유'를 준다는 점이다. 비 오는 날에는 새들도 깃을 접고 날이 개기를 기다리는 것이 보통이다. 살짝(?) 과장해서 말하자면, 우산은 비행기에 버금가는 발명품이다.

비 오는 날, 백담사에 갔다. 내설악은 백담천에 실려 용대리로 흘러가고, 우산을 든 사람들은 저마다의 하늘을 받치고 백담사로 흘러들었다. 무엇이, 어떤 매력이 사람들로 하여금 비 오는 날에도 이 절을 찾게 했을까. 속사정까지야 알 수는 없으나 한 가지는 분명하다. 우산이 사람들을 집 밖으로 나가게 했다는 것. 우산의 위대한 공덕이다.

비 오는 날 불전 처마 아래에 서면 세상에서 가장 넓고 아늑한 품에 안긴 느낌이 든다. 근심은 낙숫물을 따라 흘러내리고, 나는 이 비가 하염없이 내려도 좋겠다고 생각한다. 절집의 처마는 세상에서 가장 큰 우산이다.

백담사 극락보전 꽃살문은 성글게 짠 빗살에 국화를 새겨 올렸다. 만해 스님은 백담사 화엄실에서 시집 〈님의 침묵〉을 탈고하고, "늦은 봄의 꽃수풀에 앉아서 마른 국화를 비벼서 코에 대는 것과 같을는지 모르겠습니다"는 문장을 썼다. 극락보전 문살의 꽃. 만해 스님의 그 꽃이다.

손영자 작가



백담사 극락보전.



윤인수 원장 연구개발

겨우살이환
재료명 : 겨우살이, 느릅나무뿌리껍질, 도라지, 마가복열매, 더덕, 모과, 천문동, 맥문동, 비파잎, 삼백초, 뽕나무뿌리껍질, 둥굴레뿌리, 무화과, 탱자, 대추, 산사나무열매, 맥아
비염이 있습니까? 숨이 차십니까?
기침,가래가 힘드십니까?
천식에 힘드십니까?

여주환
재료명 : 여주, 돼지감자, 바나바잎, 민들레, 복분자, 옥수수수염, 오미자, 구기자, 천문동, 창출, 뽕나무뿌리껍질, 음나무줄기, 독활, 작약, 칡뿌리, 감초, 산사나무열매, 맥아
당뇨 있으신 분
혈당수치관리에 좋습니다.
다이어트가 필요하신 분은 꼭 드세요.

전복껍데기환[석결명 스틱]
재료명 : 전복껍데기, 마리골드, 국화, 민들레, 엉겅퀴, 백작약, 다시마, 톳, 산사나무열매, 맥아
노안, 안구건조증, 백내장, 녹내장, 황반변성, 당뇨망막병증 등 눈에 문제가 생기면 석결명환으로 해결하세요.
세종대왕께서도 드셨다고 세종실록에 나와 있습니다. 추사 김정희 선생도 제주도 유배시 석결명환을 드셨다고 방송되었습니다.

폐청소법, 치매·중풍, 고혈압 잡는 방법은
윤인수 원장의 경혈자극요법을 활용하세요.
기침, 가래, 기관지염, 비염, 폐렴, 기관지폐렴, 폐 화농증, 편도선염, 축농증, 천식, 불면증, 수면장애, 어지럼증, 두통, 이명(귀울림), 구안와사, 조현병, 협심증, 위염, 위경련, 변비, 어깨·관절통증, 발목관절통증, 오십견, 목이 쉬었을때, 전립선 질환, 요실금, 콩팥 위축, 방광염, 신장염, 황달, 간경화, 피부가려움증, 다이어트, 생리불순, 백내장, 각막염, 결막염, 녹내장, 황반변성, 야맹증, 원형탈모증, 삼차신경통(상지, 중지, 하지) 등
전화주시면 간략하게 설명드립니다

골담초환
재료명 : 골담초분말, 쇠무릎뿌리, 황칠나무, 두충, 가시오피, 참당귀, 울금, 덩이뿌리, 쇠비름, 독활뿌리, 개다래열매, 천마뿌리, 율무, 질경이, 음나무줄기, 왕느릅나무껍질, 엉겅퀴, 산사나무열매, 맥아
허리, 다리가 불편하십니까?
오래 걷기 힘드십니까?
계단 오르기 힘드십니까?

산수유환
재료명 : 산수유, 호박씨앗, 옥수수수염, 복분자, 사상자, 토사자, 구기자, 오미자, 천궁, 우슬, 복령, 산청목, 질경이, 뽕나무뿌리껍질, 두충, 산사열매, 맥아
소변때문에
밤에 몇번씩 일어나십니까?

어성초환
재료명 : 어성초, 적하수오, 자소엽, 측백나무잎, 서목태, 원지, 우슬, 천문동, 마가목열매, 복분자, 솔잎, 뽕나무뿌리껍질, 녹차잎, 창출, 구기자, 산사나무열매, 맥아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십니까?

하지·아이케어센터 | 구입문의 : 02-969-9007 / HP.010-3245-0118
농협 : 301-0234-9633-61 / 예금주 : 윤제하

민속죽염 30년 전통
조상의얼과혼이담긴 우리민족의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좋은 소금" 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①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②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③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④ 정혈작용 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 9번 구운 민속죽염 ◈
가루자죽염 125g 45,000원
가루자죽염 230g 82,000원
알갱이자죽염 125g 50,000원
알갱이자죽염 230g 90,000원
휴대용 알갱이자죽염 20g 9,000원

◈ 2번 구운 민속죽염 ◈
◆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보급형 민속죽염 500g 20,000원
250g 10,000원

※ 단체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 구입가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됩니다.

주문 및 상담 010-2823-0483
입금 : 농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길381-4 www.msjy.co.kr